

화천 11공수 주둔지? 광주 하천변?...암매장 추정지 조사해야



5·18 전야제...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떠오르는 민주주의
5·18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제37주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렸다.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떠오르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전야제에서 오월여민회와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금남로를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승춘 떠난 보훈처 전국 곳곳 5·18 현수막

대대적인 기념식 홍보 눈길

5·18을 확대하던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에는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대대적인 기념식 홍보에 나섰다. 광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로운 정신이 마침내 전국화하는 분위기다.
국가보훈처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5·18 정신으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5·18 기념식이 오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

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훈처는 지난 13~14일을 전후해 현수막 설치 지시를 내렸고, 전국 5개 지방보훈청은 지역별로 현수막 제작 및 설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주무 부처이면서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훈처가 5·18 기념식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에는 볼 수 없던 일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5·18 정신을 계승해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뜻으로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충주에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날인 17일 충북 충주에 행사를 알리는 국가보훈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5·18 37주년 3대 의혹 이번엔 밝혀야 행방불명자 찾기

#. 지난 1995년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강원도 화천군을 찾았다. 강원도에서 날아든 제보 전화를 받은 직후였다. 제보를 한 택시기사 "옛그제 뒷좌석에 군인들이 탔는데 이상한 얘기를 했다. '화천 오소리 군부대 주둔지에 5·18 당시 광주에서 신고 온 시체를 군인들이 파묻었다. 부대 출신들은 다 아는 얘기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찾아가 보니 그곳은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11공수여단의 주둔지였다. 부대는 이전됐고 부대 관련 인물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해봤지만 소독은 없었다. 해당 부대 출신 주민 일부는 정 전 회장의 "아는 대로만 말해달라"는 질문에 무언가를 말할 듯한 표정을 짓다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

'441명의 행방불명자는 어디로 갔나. 5·18 당시 행방불명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면 그들은 어디에 묻혀있나?'

1980년 광주·18민주화운동이후 3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이다. 풍문으로만 돌던 '화장터에서의 시체 소각'이 없었다면, 행방불명자 문제는 곧 암매장지 발굴로 귀결된다. 행방불

'광주서 신고 온 시신 묻었다'·'군인들 하천변 포크레인 작업' 제보 "군인들, 교도소 사망 시신 촬영" 폭격...암매장 군 문서 존재 가능성 37년간 떠돌던 민주주의 넋 찾기 정부 의지·계엄군 양심 고백 절실

명자 대다수는 죽음을 당하고서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 전 회장은 17일 "5·18 행방불명자, 5·18 암매장지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당시 군인들의 양심 고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묻었으면 이제는 유골이라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당시 군인들의 양심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도 관련 기록 공개를 국방부에 지시하고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에는 시신을 트럭에 싣고 매장한 군인들, 그리고 핵심 목격자 증언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시신 처리 및 암매장과 관련한 군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붙잡혀 광주교도소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시민들은 "군인들이 당시 교도소에서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얼굴 등을 촬영했다. 분명히 시신 사진은 물론 시신 처리에 관한 문서가 군에 존재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 5·18 암매장지와 관련된 67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복된 12곳과 신고 부실한 46곳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9곳은 발굴했으나 5·18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광주시는 가족·친지들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신청된 441명 중 75명만을 공식 행방불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지만, 한 시민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분소가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옛 상무대) 인근 하천변을 유력한 암매장지로 지목하고 있다. 전북 익산에 사는 김영환(59)씨는 "1980년 5월 경운기를 고치러 송정리에 갔다가 새벽 4~5시쯤 아버지와 돌아오는 길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군용 트럭이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광경을 목격했다"면서 "당시 하천변에는 작업하는 포크레인도 있었고 트럭에서 무언가가 툭 툭 던져지는 소리까지 들었다. 계엄군이 시신을 암매장한 게 아니고 뒤흔트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이 광경을 함께 본 아버지가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서 몇 년 전에서야 광주시에 제보를 했다. 광주시는 제보장소에 대해 '통신시설 매설 과정에서 파헤쳐졌던 장소로, 암매장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광주일보 65 since 1952

Let's go 흥! 2017
제10회 고흥 우주항공 축축제

2017.7.29(토)~8.2(수) 5일간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

THE 10th GOHEUNG AERO-SPACE FESTIVAL

우주센터 발사연장 관람, 4D/3D 영상관, 가상현실VR, 로봇드론 조종, 발사관측, 물놀이 체험 등
http://festival.gohung.go.kr

고흥군 GOHEUNG COUNTY